

“작품에 모인 ‘빛’,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이야기한다”

어린 시절 일본 교토에서 본 ‘반딧불이’는 오랫동안 그의 마음에 남았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후, 그 반딧불이는 평생을 거쳐 ‘빛’을 쫓는 긴 여정의 출발이 됐다. 기하학적인 형태로 시각화된 ‘빛’은 그에게 절망을 뚫고 나오는 희망이기도 했고, 짙은 어둠 속을 가르며 쏟아져 나오는 밝음이기도 했다.

‘빛의 화가’ 우제길(81) 화백이 서울 평창동 가나아트 센터 전관에서 초대 개인전을 열고 있다. 내년 1월 8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빛’이라는 일관된 주제로 작업 세계를 구축해온 그의 방대하고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만나는 자리다. “남들이 하지 않는 작업을 해야 한다”는 신념으로 꾸준히 변화를 모색하며 일궈낸 성과들이다.

전시 관련 글을 쓴 심은록 평론가는 우제길 화백을 “평생 빛을 발굴하고 있는 ‘빛의 고고학자’”라 칭했고, 전시 제목은 ‘우제길: 빛의 고고학’으로 명명했다.

전시에는 그가 독자적으로 구축해 온 색면추상(色面抽象)의 다채로운 풍경을 만나는 대형 작품 30여점이 나왔다.

이번 개인전을 위해 가나아트 전시팀은 몇 차례 우 화백의 광주 작업실 겸 우제길 미술관을 방문, 방대한 작품 전례를 살피고 컨셉에 맞는 작품을 선별했다. 특히 신작 출품을 적극 독려했고, 이번 전시

우제길 화백, 2023년1월8일까지 서울 가나아트센터서 초대전 ‘빛’의 변천사...방대하고 독창적인 예술세계 되돌아보는 자리

에는 변화를 모색한 ‘또 다른’ 빛 시리즈가 새롭게 선보인다.

최근의 작품은 젊음의 기운이 물씬 풍기고, 희망을 주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 작품에 작가의 삶이 그대로 담긴다고 본다면, 근작들에는 새로운 빛을 찾아 행복하게, 쉬지 않고 작업하는 그가 보인다. 우 화백은 “내 작품에는 세상의 모든 빛이 다 들어 있다. 반딧불이부터 시작해 다양한 빛이 모여들었고, 희망을 노래하고, 행복을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우 화백은 꿈꾸던 아카이브로 유명하다. 이번 전시는 1957년 중학교 3학년 때 크레파스로 그린 ‘자화상’에서부터 시작되고, 빛과 색, 면 등의 조형 요소들이 다양한 변주를 이루며 변화하는 모습을 연대순으로 만날 수 있다.

전시에서는 200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선보이고 있는 ‘빛(Light)’, ‘리듬(Rhythm)’, ‘작품(Work)’ 연작 등 각 시대의 대표작들을 통해 ‘빛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다.

군청색이 섞인 검정색 톤의 추상화가 주를 이루는 1980년대를 거쳐 녹색, 적색, 갈색 등이 첨가되면서 색조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한 1990년대, 한지를 이용해 실험적인 작업들을 선보이던 2000년대 작품이 눈길을 끈다. 지그재그 겹치는 방식으로 기하학적인 화면을 구성한 그의 작품에서는 빛의 리듬감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조형성과 깊이 있는 빛의 효과를 느낄 수 있다.

2층 전시실에서는 다양한 색채가 돋보이는 최신작들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주황, 녹색 등 강렬한 원색의 ‘넓은 면’을 전면 배치한 작품들이 시선을 붙잡는다.

“지난해까지의 작업이 얇은 띠 형태의 줄을 조합해 조형성을 만들어가는 것이었다면 이번 작품은 넓은 면치리로 강렬한 인상을 주려 했습니다. 자연스레 색의 비중이 커지고, 알록달록 색동네가 되더군요. 제일 마지막까지 잡고 있었던 작품인데, 대표작으로 내놓아도 좋겠다 싶었습니다.”

또 마치 소용돌이처럼 보이는 원형 구조 안에 빛



‘우제길: 빛의 고고학’ 전시 열고 있는 가나아트센터에서 포즈를 취한 박서보(왼쪽) 화백과 우제길 화백.

의 확산을 표현한 작품도 눈길을 끈다.

“어릴 적 만난 반딧불이를 평생 쫓아다녔지만, 지금도 여전히 빛에 대한 새로움을 쫓는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제길의 마음에 빛은 여러 모습으로 남았고, 빛은 시대에 따라 변화했어요. 1980-90년대는 블랙의 어둠 속에서 날카롭게 솟아난 빛이었습니 다. 이후에는 행복을 이야기하고, 희망을 이야기하는 빛으로 변모했지요.”

그는 앞으로의 작업이 또 어떻게 변할지 자신도 궁금하다고 했다. 더불어 자신의 작품 세계 뿐 아니라, 한국 미술의 한 단면을 보여줄 수 있는 ‘아카이브 전시’를 언젠가는 해보고 싶다고 했다.

우 화백은 이번 전시와 관련해 자신의 뿌리였던 광주의 추상그룹 ‘에포크’와 미술을 정식으로 전공하지 않은 자신을 늘 이끌어주었던 스승 배동신-강

용운-양수아에 대한 고마움을 전했다.

우 화백은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본전시회에 참여, 인기상을 수상했으며 2019년 제18회 문신미술상을 받았다. 또 한국미술평론가협회가 선정한 한국 현대미술을 대표하는 100인에 뽑혔으며 일본, 프랑스, 독일 등 해외전을 포함해 100회 이상의 개인전, 900회 이상의 단체전에 참여했다.

한편 지난 16일 열린 전시 개막식에는 지난 1973년 에보고 10주년 행사에서 처음 만난 후 끈끈한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박서보 화백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92세의 노화백은 넓은 전시장에 걸린 작품을 일일이 살피고 뒷풀이 자리에도 함께 참석해 우 화백을 격려했다. 박 화백은 “우리 더 열심히 작업하자”며 덕담을 건넸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 가나아트센터 전관에서 내년 1월8일까지 이어지는 ‘우제길: 빛의 고고학’ 전 모습.

예술의 다양성과 융합성 ‘CSU아트페스티벌’

조선대 미술체육대학 전시회, 21일까지 금호갤러리

조선대 미술대학은 1946년 개교와 함께 문예학부 예술과를 모태로 탄생했다. 이후 1972년 응용미술과가 개설되고 2000년 만화애니메이션 학과가 신설됐다.

현재는 회화, 시각디자인,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공학, 문화콘텐츠, 라이프스타일디자인 6개 학부 10개 전공 분야를 통해 미술전문 교육기관으로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과 미래를 이끌어 오고 있다. 오랜 기간 배출된 졸업생들은 지역을 넘어 국내외 예술계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선대 미술체육대학(미술) 재학생들이 참여하는 ‘CSU아트페스티벌’이 오는 21일까지 광주 유스퀘어문화관 금호갤러리에서 열린다.

전시를 통한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 일환으로 마련된 이번 전시에는 60여명의 학생들이 참여해 서양화, 한국화, 미디어 아트, 도자기, 가구, 주얼리, 애니메이션, 디자인 등 70점의 작품을 선보인다. 다채로운 장르가 어우러진 전시장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 흥미롭게 다가온다.

무엇보다 전공을 넘나드는 다양한 콜라보레이션

작업이 눈에 띈다. 특히 서양화 전공 학생들은 지역 업체 소보제화와 아트 콜라보 작업을 진행하기도 했다.

미술체육대학 부학장 조운성 부교수는 “이번 전시는 순수미술과 디자인의 융합, 회화와 애니메이션의 융합, 미디어와 미학의 융합 등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졌다”며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시대변화에 맞는 전문적인 인재 양성을 위해 학습역량 강화 프로젝트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CSU아트페스티벌’에서 만나는 애니메이션(왼쪽), 서양화 전공 학생들과 소보제화 아트콜라보.



소리하나 ‘딩동 누구일까요’ 공연 모습

‘토끼, 용궁 구출 대작전’

예술창작집단 소리하나, 18일 ACC 어린이 문화원

잘 알려져있는 수궁가를 환경오염과 접목시킨 국악동화 공연이 열린다. 예술창작집단 소리 하나는 18일 오후 3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어린이문화원 어린이극장에서 ‘토끼, 용궁 구출 대작전’을 선보인다.

공연은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쓰레기로 인해 환경이 오염되는 것을 아이들 시각에 맞춰 표현한 국악 아동극으로, 무당산을 청소하며 살던 토끼에게 별주부가 쓰레기로 인해 남해 바다가 오염돼 용왕이 병에 걸렸다고 함께 바다를 청소하자고 찾아온다. 이번 공연의 연출과 대본, 소리와 연기에는 소

리하나 대표 남지원이 참여한다. 타악에는 윤준호, 가야금에 정해성, 신디에 최희선, 무용에 한명선, 배정화, 이반야, 김원선, 김보라가 함께한다. 입장권은 오후 2시부터 현장에서 선착순으로 배부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된다.

소리 하나는 젊은 국악인들의 예술활동을 바탕으로 다양한 국악 콘텐츠를 확립하고 도전을 통해 창의적인 국악공연 레퍼토리를 개발해 전문 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대중화를 위해 창단된 단체다. 문의 010-8635-0597.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청소년은 만든다...무엇을, 어떻게, 왜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 ‘메이커스 페어’ 17일 스페이스 고고

청소년들이 한데 모여 무엇을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왜 만드는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는 행사가 열린다. 광주청소년삶디자인센터는 17일 오후 2시 센터 4층 스페이스 고고에서 ‘메이커스 페어’를 개최한다.

‘메이커스 페어’는 만들기에 관심 있는 청소년과 작업자가 함께 지속 가능한 메이킹 활동을 고민하기 위한 장으로, ‘만드는 이야기’, ‘영 메이커 워크숍’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먼저 ‘만드는 이야기’는 광주를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을 초대해 창작활동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배워볼 수 있는 시간으로, 천을 이용해 의상과 공간을 연출하는 타시현 작가와 주변 풍경에서 영감을 얻

어 작업하는 서영기 회화 작가, 3D프로그램으로 가구를 설계·제작하는 한우석 작가가 각 20분씩 함께한다.

‘영 메이커 워크숍’에서는 스페이스 고고에서 꾸준히 창작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직접 길잡이로 나서는 원데이 워크숍으로 의류 커스터마이징, 미니 트레이 만들기, 아이패드 4컷 그리기, 부직포 키링 만들기, 건담 커스터마이징 체험을 진행한다.

17일을 시작으로 내년 1월 21일까지는 ‘우리는 어떤 메이커가 될까?’를 주제로 하는 전시도 열린다. 올해 스페이스 고고에서 운영한 고고연구소, 삼삼만방구, 피규어 제작소 외 6개 프로그램에서 활



‘메이커스 페어’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

동한 청소년들이 메이킹 기초 및 전문과정을 습득해 어떤 메이커로 성장했는지 선보이는 전시다. 예약은 온라인(bit.ly/메이커스페어2022)으로 사전 신청하면 된다. 문의 070-4203-7506.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롯데갤러리, 이달 말까지 큐레이터 공개 모집

롯데백화점 광주점 11층에 있는 롯데갤러리가 이달 말까지 큐레이터를 공개 모집한다. 광주·전남 출생이거나 지역 교육기관을 졸업했거나, 광주·전남 미술계에서 2년 이상 활동한 경력 있으면 지원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롯데갤러리 홈페이지(lottegallery.com)와 인스타그램(@lottegallery_official)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모에서 선발되면 2023 광주비엔날레 기간

롯데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을 할 수 있다. 포상금과 전시에 필요한 예산, 전문 큐레이터 멘토링도 지원된다. 최종 선발자는 다음 달 말에 롯데갤러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역의 역량 있는 신진 큐레이터가 발굴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롯데갤러리를 통해 관객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